

예배 및 모임안내

2023-04 2023년 01월 22일

예 배	일 시	장 소
주일예배	주일 오후 1시 50분	예배당
청년 소 모임	주일 오후 3시 30분	교육관
한민 말씀방	매일	카카오톡

주일 예배 봉사위원

	01. 29	02. 05	02. 12
대 표 기 도	이상호 목사	정용현 집사	강희수 성도
성 경 봉 독	이세현 형제	정용현 집사	강희수 성도

환영 : 예배를 위해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께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교회소식

1월 축복인사 - 채워주심으로 넉넉하세요(성도 간에)
채워주심에 감사합니다(자신에게)

1.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 청년회 총회 결과 - 회장- 강희수, 부회장-김정규, 회계 - 오서진(축하 드립니다)
조장 - 윤미경, 장래황
3. 청년회 임원및 조장 모임 - 27일(금) 저녁 7시, 교육관(5번 교실)
4. 나눔의 시간 - 떡국이 준비되었습니다. 섬겨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우동정

생일	

지난주통계

주일헌금	
십 일 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합계(Euro)	

브레멘 한민교회

Bremen Han-Min Reformierte Kirchengemeinde

“넉넉하게 채워주신 하나님(느9:21)”



담임목사 이 상 호(Sang Ho Rhee)
예배반주 조 영 재 형제
교회 : Anna-Stiegler-Str. 124 28277 Bremen
전차 (Tram) 4번 / 버스 (Bus) 22, 29, 51, 52번
정거장(H) : Kattenturm-Mitte



<http://www.brehanmin.de>

믿음의 부요를 보이고
소망의 기쁨을 나누며
사랑의 배려를 나타내는 교회

주일 예배 Gottesdienst

찬 양 Gemeindelied	-----	Liebevoll 찬양팀
송 영 Chor	-----	반주자
기 원 Altargebet	-----	이상호 목사
신앙고백 Glaubensbekenntnis	사도신경	다같이
찬 송 Gemeindelied	313 장	다같이
기 도 Gebet	-----	김복자 권사
성경봉독 Predigttext	빌 1 : 3 - 7(신p317) (Philipper 1:3~7)	김복자 권사
교회소식 Information & Begrüßung	새가족환영	이상호 목사
헌 금 Gemeindelied zur Kollekte	-----	이상호 목사
설 교 Predigt	바울이 행복한 비결	이상호 목사
* 파송찬양 Abschlusslied	선한 능력으로	다같이
* 축 도 Segnungsgebet	-----	이상호 목사
* 송 영 Chor	-----	반주자

* 표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예배 전 입구에서 봉헌해 주세요.

†다음 주일 기도 담당 : 이상호 목사, 성경봉독 : 이세현 형제

†기도제목

1. 물질에 의한 행복이 아닌 예수님을 아는 행복을 가지게 하소서
2. 한민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예배하는 자들을 채워주소서
3. 전도, 구제, 봉사, 영성훈련에 힘쓰는 한민교회가 되도록
4. 우크라이나와 세계 평화와 경제 안정을 위해
5. 김선택, 장보경(형가리)선교사의 가정과 사역을 지켜주소서

대요리 문답

문 6 : 성경이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을 알게 해 줍니까?

답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과 신격(神格)안에 있는 삼위와 하나님의 작정과 그것을 수행하시는 일에 대하여 알게 해 줍니다(출3:14, 마28:19, 엡1:11, 행4:27)

문 7 :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답 하나님은 영이시며, 그의 존재와 영광과 축복과 완전하심이 무한하시고, 총족하시며, 영원하시며, 불변하시며, 우리가 그를 완전히 이해하기 어려우며, 어디든지 계시며, 전능하시고 전지하시며, 지혜와 거룩과 의와 자비가 지극하시며, 은혜로우시며, 오래 참으시며 선과 진리가 풍성한 분이십니다(요4:24, 사40:20, 행7:2, 딤후6:15, 마5:48, 창17:1, 시90:2, 약1:17, 왕상8:27, 렘23:24, 계4:8, 히4:13, 롬16:27, 사6:3, 신32:4, 출34:6)

* 설교노트

소모임을 위한 질문

1. 행복의 조건에 대하여 서로 나눠보세요.
2. 영적 지도자와 쉽게 기도제목을 나누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